

지난해 지역 소비자물가 2.5% 상승 '4년만에 최저'

●호남통계청 '12월·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전년비 광주·전남 각각 1.2·1.0% ↓

농축수산물·신선식품 가장 많이 올라

지난해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에 그쳐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 물가는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

월·연간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광주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했다. 이는 2023년(3.7%)과 비교하면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광주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1년 2.6%를 달성, 2022년 5.1%로 집계된 뒤 4년

2024년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

광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채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2.5% 상승해 2023년(3.8%)보다 1.3%포인트 오름폭이 둔화했다.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 대비 6.9%

전남



상승했다. 신선어개(1.6%→-1.0%)와 신선채소(5.9%→2.7%)는 2023년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신선과실은 9.6%에서 15.4%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품목성질별로는 배(89.6%), 감(46.3

%), 굴(33.6%), 사과(24.8%) 등 순으로 농축수산물(4.8%)이 크게 올라 이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2024년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해 2023년(3.5%)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전남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이 지난 2021년 2.6% 기록한 뒤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해 2023년

(3.5%)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9.4% 상승해 지난해(8.4%) 대비 1.0%포인트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신선어개(9.3%→-0.4%)는 하락 전환됐으나 신선채소(5.2%→8.2%)와 신선과실(10.7%→19.5%)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품목성질별로는 배(58.8%), 굴(58.7%), 사과(32.8%), 복숭아(23.1%), 포도(16.2%) 등의 과일과 배추(27.0%), 토마토(13.3%) 등 채소에서 모두 올라 농축수산물(6.5%)의 오름폭이 광주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안태호기자

“더 이상은 못 버텨”...광주·전남 폐업 공제금 사상 최대

광주 346억·전남 299억

역대 최대 규모

최근 5년간 지급액 급증

市 100%·道 120% 늘어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된 소비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전례 없는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2024년 광주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3천120건으로 전년(3천92건)보다 증가했다. 지급액은 346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다.

전남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2천962건으로 전년(2천981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29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 가입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폐업 등 생계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돼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도 불린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은행 대출 연체나 국제 채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는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버팀목으로 여겨지지만 수혜자가 증가하는 것은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 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이어진 코로나19팬데믹의 여파와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지난해 4분기 평균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따르면 지난 31일 올해 4분기 원/달러 환율(일일 종가 기준) 평균은 1,398.75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418.3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 환전소 현황판.

원/달러 환율이 최근 1,500원 근처까지 치솟으면서 4분기(10-12월) 평균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1일 올해 4분기 원/달러 환율(일일 종가 기준) 평균은 1,398.75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418.3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 환전소 현황판. /연합뉴스

침체 등이 겹치면서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지속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광주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지난 2020년(2천186건·173억원)→2021년(2천699건·228억원)→2022년(2천455건·233억원)→2023년(3천92건·276억원)→2024년(3천120건·346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로 2020년(1천707건·136억원)→2021년(2천67건·180억

원)→2022년(2천142건·200억)→2023년(2천981건·280억)→2024년(2천962건·299억)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만 놓고 보면 광주지역은 2020년 173억원에서 2024년 346억원으로 5년 만에 약 100% 급증했으며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136억원에서 299억원으로 120% 가량 눈에 띄게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도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금액 규모는 크게 늘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총액은 1조3천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천820억

원)보다 10.1%(1천199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연간 지급액(1조2천6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경기 부진,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 등이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국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전국 98만6천487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기자

광주TP, 스마트공장 역량강화 교육

우수 사례 공유·실무 지식 전달

광주테크노파크는 1일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4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분야별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기업, 도입 기업, 공급기업의 대표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78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스마트공장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관련 절차, 우수 사례 공유, 산출물 작성 요령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여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와 도입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제공했다.

교육 첫날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성과를 설명한 데 이어 사업 추진 절차와 준비 방법을 심도 있게 다뤘다.

둘째 날에는 도입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마트공장 수준 향상의 필요성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 받았으며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절차와 평가 대응 방법에 대해 강의하면서 실무적인 지식을 전수했다. /정승윤기자

콘진원, 청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고서 ‘청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장애인 게임 접근성 제고 방안 기초연구’, 2023년 ‘시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방안 연구’에 이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했으며 장애인 유형별 게임 접근성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청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는 ▲국내·외 게임 접근성 사례조

사 ▲세 가지 플랫폼(PC, 모바일, 콘솔)의 9개 게임 접근성에 대한 현황조사 ▲접근성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분석(AHP)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게임 접근성 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청각장애인들은 비교적 게임이동에 대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청각보조기기보다는 게임 내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에 기여한 게임사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 기관이 장애인 접근성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게임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2025 푸른뱀의 해, 을사년

희망으로 속아도쁘다

새로운 시작의 길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눈을 책임지는

센트럴윤길중안과 의원

오한진 원장 | 최영준 대표원장 | 신인호 원장

진료문의 062)376-1001 광주 신세계 이마트 맞은편 (여반센트럴빌딩2층)